

# “기름값 아끼자”... 주유 혜택 큰 카드로 갈아탄다

### 휘발유·경유값 2000원대... 기름값 깎아 주는 카드 인기 카드사 “적립보다 결제금액 일정비율 할인이 더 혜택 커”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하면서 2000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주유 혜택 카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9.3원 오른 2013.0원이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8.1원 오른 리터당 2008.4원을 기록했다.

카드사들이 최근 주력으로 내놓고 있는 ‘주유 카드’의 특징은 적립 형태가 아닌 기름값 결제금액에서 일정 비율 할인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딥 오일(Deep Oil)’은 주유 결제금액에서 ‘일정 할인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카드다. 4개 정유사(GS칼텍스,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 중 직접 한 곳을 선택해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최대 3만원까지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알뜰족에게 인기가 높다.

롯데카드 ‘아임 드라이빙(I'm DRIVING)’은 주유 패턴에 맞춰 6가지 옵션(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평일, 주말) 중 하나를 선택해 5만원 이상 주유시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5% 할인된다.

KB국민카드의 ‘탄탄대로 오토카드’는 충전소를 포함한 전 주유소에서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월 할인한도 5만원 내에서 할인된다.

하나카드 ‘멀티 오일(MULTI Oil) 모바일카드’ 역시 4대 주유소에서 10%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청구 할인된다. LPG충전소 이용 금액도 포함된다.

삼성카드 ‘ID ENERGY’는 4대 주유소



전국 휘발유·경유 가격이 10년 만에 2000원을 돌파하면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신용카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적립 형태가 아닌 주유 결제금액에서 ‘일정 할인율’을 제공하는 카드가 사용한다면 할인혜택을 커 인기를 끌고 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에서 1만원 이상 주유 시 1만원 할인되며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월 3회까지 3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에너지플러스카드 에디션’은 GS칼텍스에서 월 4만원 한도로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의 ‘DA@카드의정석’은 주유

관련 이용금액의 0.8%를 청구 할인해 준다. 이 카드의 특징은 전월 이용금액 관계 없이 할인한도가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가맹점 결제 시 기본 0.8% 청구 할인이 적용된다.

한 카드업체 관계자는 “고유가시대가 일정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유

특화 카드 하나 정도는 필수”라면서 “리더당 일정 금액의 할인 혹은 적립을 제공해 주는 카드보다 주유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카드가 기름값이 오르는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 OK저축은행, 연 2.5% 금리 중도해지OK정기예금 특판

### 투자대기자금 ‘파킹통장’ 상품

OK저축은행은 7일 ‘중도해지OK정기예금’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단 하루만 맡겨도 약정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한 금리를 보장해 줘 각종 투자 대기 자금을 단기간 맡겨 두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OK저축은행은 3000만원 한도로 이 상품에 연 2.5%(세전)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특판 금리는 7일부터 새로 가입한 고객에 적용되며 영업점을 비롯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예치 가능하다. 한도 소진 시 판매는 종료된다.

OK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OK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3.2%(세전)를 제공하며, 비대면 가입 시 0.1%p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3.3%(세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1년 경과 후 중도해지를 해도 약정 금리가 보장되는 ‘OK안심정기예금’도 최고 연 3.3%(세전, 비대면 가입시)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OK정기적금’ 금리도 연 2.6%(세전, 비대면 가입 시)로 상향 조정됐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리 인상기임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파킹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도해지 OK정기예금’ 특판을 결정했다”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을 예치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 실손보험 백내장 수술 지급 급증

### 보험 업계, 1~3월 4570억원 지급 3월만 2050억... 실손액 17.4%

올해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457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한 달간 지급된 보험금만 2053억원이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6일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0% 수준이었던 지급보험금 비중이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커졌다.

협회는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과잉수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 업계는 일부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수술을 유도하거나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 청구를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 10개사의 백내장 수술 관련 하루 평균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지난해 40억9000만원에서 올 3월 110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협회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 및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금융안정·혁신 해결사	사상 첫 검찰 출신	호남·여성·검찰 출신
<b>김주현 금융위원장</b> •1958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MBA 학위 •행정고시 25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여신금융협회장	<b>이복현 금융감독원장</b> •1972년생 •사법연수원 32기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b>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b> •1971년생 •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법무법인 로고스-홀츠 •공정위 송무담당관 •고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G전자 사외이사

## 경제·금융 사령탑 70년대생 X세대 등장

### 금감원 첫 검찰 출신 수장 ‘실험’... 금융·경제수사 정통

〈1면에서 계속〉 이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없었다. 보통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관료 출신으로 역대 금감

원장 14명 가운데 외부에서 영입된 경우는 최홍식·김기식·윤석현 전 원장 3명뿐이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로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등을 함께 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을 잇달아 합격했다.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같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거론되는 강 교수 역시 검사 출신이다. 서울대와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대전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8~2010년에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도 활동했고 2011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1997~19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형 기자 hskim@skyedaily.com

60th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이 키워온 60년, 가치 키워갈 100년!

# 대한민국 으랏차차

# 착착착

캠코와 함께 희망도 기회도 착착착 만나세요

도전하는 기업에게 기회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희망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장착!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